

PUBLICART

THE MONTHLY PUBLIC ART MAGAZINE
WWW.ARTINPOST.CO.KR JUNE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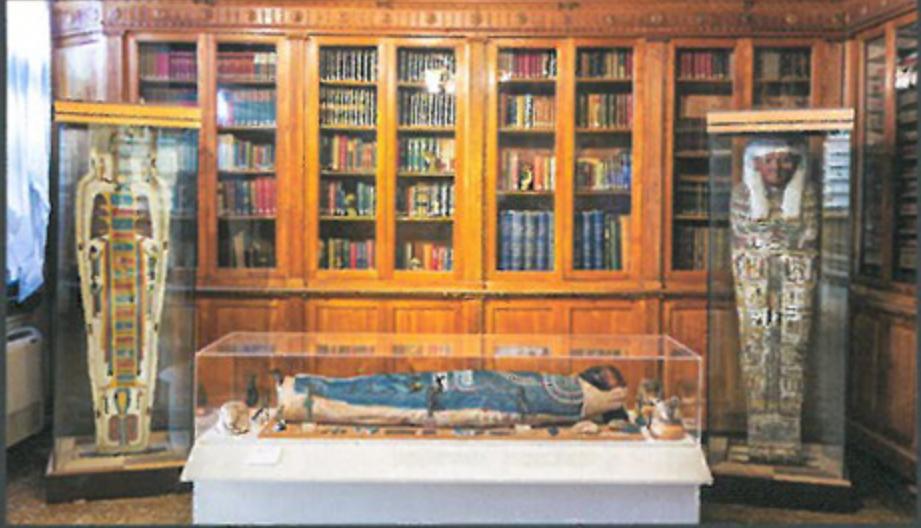


105
2015.06

2015 베니스비엔날레
venice biennale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콘텐츠잡지 2015

[장 보고시앙(Jean Boghossian)] 예술을 소명으로, 현대미술을 후원하다



미술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베니스비엔날레' 황금사자상의 2015년 영예는 아르메니아 국가관에게 돌아갔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아르메니아 학살 100주년"이란 주제를 바탕으로 기획된 전시는, 비엔날레가 개막하는 순간부터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본 전시가 선보이는 베니스 본 섬과 뚜 떨어진 외딴 섬에 마련된 전시임에도, 아트파플들은 아르메니아관을 관람하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워낙 역사적 내러티브도 훌륭했지만 기획이 밀도 있게 구현된 데에는 이 국가관을 전적으로 후원한 문화재단의 힘이 컸는데, 아르메니아 출신의 부호 장 보고시앙이 진두지휘하는 재단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보고시앙 재단은 1992년 레바논의 보석상에 기원하여 로버트 보고시앙과 그의 두 아들인 알버트, 장 보고시앙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회계 관련 업무는 알버트 보고시앙이 그리고 회장으로서 실제적인 업무는 장 보고시앙이 맡고 있는데, 아르메니아 출신인 이들은 현재 앤트워프와 제네바, 브뤼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들은 예술을 통해 동·서양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단이 이번 베니스비엔날레의 아르메니아관 메인 스폰서를 맡았고,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스스로가 보고시앙 재단의 설립자이자, 회장, 콜렉터이며 동시에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작가일 만큼 예술에 흠뻑 빠져있는 장 보고시앙을 만나, 그의 철학과 비전을 물었습니다.

Q. 보고시앙 재단은 어떤 취지로 설립되었습니까? 지금까지의 여정을 들어 재단의 특성을 설명해주신다면요?

보고시앙 재단은 인도적 목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990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우리 가족의 고국인 아르메니아는 독립을 얻었지만, 산산이 부서진 경제 상황과 마주했고 때마침 8만 명 이상의 부상자와 사상자를 발생시킨 지독한 지진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국가를 위해 인간적 활동을 시작하고 싶다'는 욕망에 불을 지폈습니다. 처음 15년간 보고시앙 재단은 아르메니아와 레바논에서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미래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아르메니아, 시리아, 레바논에서 고아원을 설립하거나 고립된 지역에 이용 가능한 물을 제공하고, 예술학교를 세우거나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기술학교를 세우는 등의 사회적·교육적·예술적·환경적 프로젝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두 번째 도시 규모리에 강도 높은 지진이

다시 강타했을 때에는 그것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선보여 2002년 세 부자(父子)가 모두 규모리의 명예시민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비록 고국을 떠나 있지만 우리가 향유하게 된 인간적 삶을 국민들에게도 선사하고 싶었습니다.

장 보고시앙은 아르메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 사업이던 보석 사업을 이은 그는 보석세공사로도 일한 바 있습니다. 그는 1992년 가족들과 보고시앙 재단을 설립했고 이후 부아보르의 순수예술 아카데미에서 만학도로 수학했으며, 브뤼셀에 있는 위클에서 생활했습니다. 2006년 빌라엥팡을 취득하면서 보고시앙 재단을 예술과의 접합지로 이끈 그는 스스로 작가로서 브뤼셀 내·외에서 전시를 선보였으며, 2012년 한국의 영은미술관 그룹전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아르메니아관 메인 스폰서를 자청한 그는 비엔날레 기간 동안 베니스에 위성 전시로 마련된 한국의 <단색화>전도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brand.hyundai.com/ko/art/interview/art-insight-jean-boghossian.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